

설날 가정 예배

예배의 부름 시편 136:1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다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 말은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설을 맞이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
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6:22~26 말은이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 24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25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26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인도자

말씀에 앞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지난 한 해 내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그 말에는 축복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때로는 날선 말도 하고, 축복
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선 오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과 그 가문에게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축복해야하는지 말씀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24절)

지난 한 해도 기록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걸어오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나눌 음식이
있는 이 모든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 이라고 여기는 일상 뒤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복과, 지켜
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손길이 무엇인지 깨달
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잊을 수 있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
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깨워주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믿음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부모님의 시선은 언제나 자녀를 향하고, 자녀가 필
요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예뻐 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를 베푸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은 나와 연결된 이도 하나님의 자녀임
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26절)

지난 삶을 통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고, 두려웠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와 연결된 이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024년 한 해는 우리 안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찬 송 301장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야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도

설날 가정 예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산제일교회